

“잊지 않았습니다” 열번째 ‘슬픔의 봄’ 추모 열기

세월호 10주기

“304개의 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물결’의 추모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15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등이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한 ‘기억하고 행동하는 광주시민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12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 지역민 1200여명이 분향소를 다녀갔다. 하루에 300여명 풀이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304명의 희생자 학생 사진이 담긴 현수막 앞에서 국화를 헌화하고 희생자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애끓는 아픔을 공감했다. 예년처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현수막 수백장을 4월 한 달 동안 게시해 노란빛으로 물들였던 사업은 없어졌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노란리본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화를 위해 일부러 분향소를 찾았다는 박운진(67·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플래시 희생된 학생들과 또래다.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다면 내 딸과 마찬가지로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했을텐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진도 출신인 박씨는 “10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면서 “당시에도 사고 희생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회상하며 더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고령의 나이에 직접 자전거를 타고 분향소를 찾은 노동력(91)씨도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난다”며 잠담한 마음을 전했다. 노씨는 “미래가 창창한 애들인데 너무 안타깝다”며 “10년이 지나며 잊혀지는 것 같다. 참사 당일에도 또 찾은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을 잃은 광주지역 유가족도 힘을 보탤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故) 김재강씨

광주·전남 분향소 곳곳 시민 발길 기억문화제 열고 아픔 함께 나눠

91세 할아버지 자전거 타고 분향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아픔 나눠 제대로 된 진실 규명 촉구 목소리

의 아버지 영백(64)씨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분향소 옆을 지켰다.

김씨는 “이 아픔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면서 “나도 세월호를 뉴스에서만 볼 때는 그냥 가슴 아플 뿐이었지만,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고 나니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겠다”고 울먹였다.

김씨는 또 “세월호, 이태원 참사도 제대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참사에 대한 독립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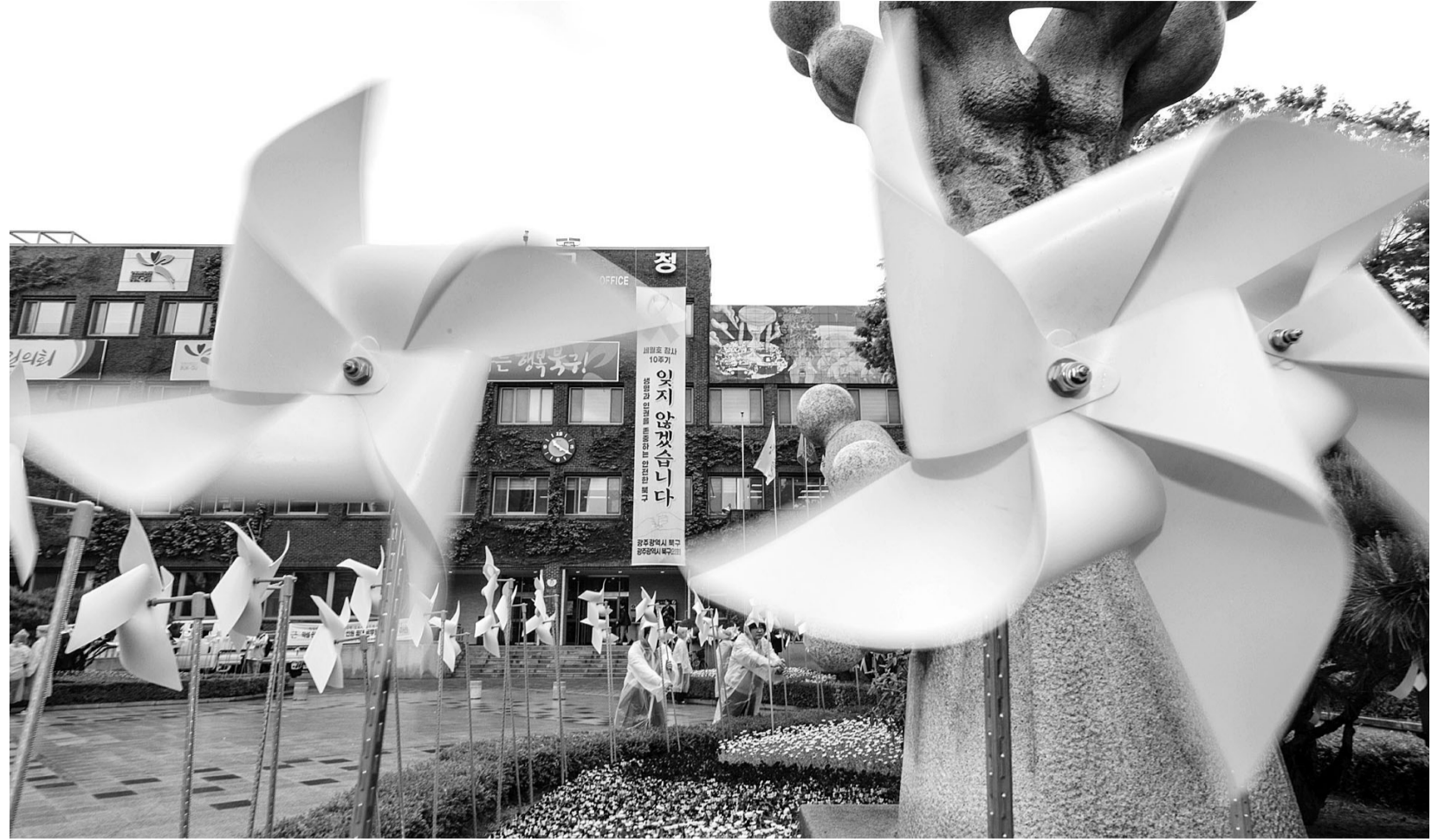
광주시 남구도 지난 12일부터 구정 1층에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등이 설치된 세월호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구정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헌화하고 방명록을 남길 수 있는 분향소도 마련됐다.

남구 분향소를 찾은 박귀영(76)씨는 “10년이 지나도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방명록에 “전원 주님의 곁에서 편히 쉬십시오”라는 문구를 남겼다.

박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선장을 제외한 뱃사람은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야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믿고 살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15일 오후 4시 30분 광주시 남구 주월동 푸른길 광장에서는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가 개최됐다. 광주시 북구도 구정 앞 광장에 노란 바람개비와 리본을 설치해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는 20일 세월호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 설치된 노란 바람개비가 불어오는 바람에 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 참사 문제를 가르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억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광주 청소년들udo 5·18 민주광장에서 기억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전시와 공연 등을 선보였다. 여수와 목포, 순천 등지에서도 13일 문화제와 음악회 형식의 지역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유가족 등 90여명이 침몰 해역을 찾아 선상추모식을 열고, 세월호선체가 보존된 목포신항에서도 추모식이 진행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게차 치여 외국인 노동자 숨진 회사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욱)은 15일 가전 부품 제조공장 대표이사 A(60)씨와 법인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조 팀장 B(53)씨와 지게차를 운전한 다른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 C(21)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차량 관련 운전면허조차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업체가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가전 부품 제조공장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노동자 D(32)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B·C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급행 사출기에 서 나온 제품을 인근 자체 보관소로 옮기고 있는 D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신호수 등의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건은 광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두 번째 사례”라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직원 음주운전 막지 못한 죄? ...광주서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올해 직원 3명 잇따라 적발 이례적인 ‘문책성 인사’

광주서부경찰서장이 소속 직원들의 잇단 음주운전 때문에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15일 문병훈 광주서부경찰서장을 광주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소속 직원 3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서장급(총경)이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로 대기발령된 것은 이례적이다.

신임 광주서부경찰 서장으로는 장병문 광주경

찰청 차안정보과장(총경)이 부임했으며, 김대원 광주경찰청 112차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총경)이 차안정보과장으로 전보됐다.

올해 들어 광주 경찰관 5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 중 3명이 광주서부경찰 소속이었다.

이 중에는 경찰관끼리 회식을 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3일 광주서부경찰 소속 A경감이 면허 취소 수치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구 금호동 금호교차로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내부 감찰 결과 A경감은 사고에 앞서 소속 부서 팀원과 과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2차로 고함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감이 소속된 부서 과장을 지난 12일자로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팀장은 팀원으로 강등했다.

지난달 1일에는 광주서부경찰 B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서구 금호동,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지난 2월에는 광주서부경찰 C경사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문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경찰청 본청에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마’ 시각장애인 결국 숨져

아파트 화재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시각장애인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15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시각장애인 A(24)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발성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새벽 1시경

결국 숨졌다.

A씨는 중증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활동보조사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 안에 함께 있었던 부친 B(55)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른 가족은 출근 등을 이유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릉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